

산업재해장애인의 진로결정수준 예측변인 연구

김 윤 봉(대구대학교 재활과학과)

본 연구는 산재장애인의 진로결정수준을 향상시켜나가기 위한 임상적인 재활상담 프로그램의 방향과 지원서비스에 대한 제도적 함의를 제시해주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5년도 산업재해 장애등급을 받은 산재장애인 256명을 대상으로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결정효능감, 사회적 지지, 의사결정유형에 대해 리커트 척도방식에 의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에 사용된 문항들은 선행연구에 의해 기본적인 틀을 재구성,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설문기간은 2006년 2월부터 4월이다. 회수된 설문지를 2006년 5월 SPSS 10.0 한국어 버전의 통계 패키지를 이용하여 빈도분석 등 기술통계량을 통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기술하고, 변인들간의 상호관련성을 추정하기 위하여 진로결정효능감, 사회적 지지, 의사결정유형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각 척도별 평균비교 분석을 위하여 t-test와 ANOVA를 이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척도들을 통해 도출된 예측변인들이 진로결정수준과 갖는 상관과 예측변인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고 LISREL 8.3 통계 package으로 예측변인들의 진로결정수준에 대한 효과와 적합도, 모수의 추정을 분석하여, 연구가설모형을 검증하였다. 회귀분석을 실시할 경우, 각 변인들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검증할 수 있으나 이러한 기법은 한 번에 단일의 관계만을 검토할 수 있을 뿐이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어서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 SEM)으로 일련의 종속 관계를 동시에 검토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산재장애인의 인구사회학적 배경에 따른 척도별 차이를 구명한 결과, 개인 특성으로는 성, 가족 특성으로는 결혼상태, 가구소득 수준, 직업 특성으로는 총 취업기간, 산재특성으로는 사고횟수와 요양종결 후 경과기간에 따른 척도별 차이를 보였다.

둘째, 산재장애인의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및 변인간의 상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진로결정수준과 가장 강한 상관을 보이는 것은 의존적 의사결정유형과 문제해결 요인, 직관적 의사결정유형이며, 의존적 의사결정유형은 문제해결 요인 및 자기평가 요인과 다소 강한 상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연구가설 모형을 검증한 결과, 초기모형에서 의사결정유형과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효능감은 모두 진로결정수준에 직접 효과를 나타냈으며, 이 가운데 의사결정유형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모형에서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투입하였는데, 그 결과 진로결정수준은 의사결정유형, 사회적 지지의 순으로 영향을 받고 있으며, 진로결정효능감은 진로결정수준에 대한 직접적인 효과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서 진로결정수준에 대한 직접적인 예측변인으로 볼 수 없고 간접적인 효과만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는 성, 부양가족 수, 가구소득 수준, 사고횟수가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는 모두 권장수준 이상의 값들이 나타나서 통계적 적합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산재장애인에 대한 직접적인 서비스 뿐만 아니라 산재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개발하고, 특히 저소득 가구의 산재장애인에 대해 사회적 자원을 발굴하여 제공하며, 고령의 산재장애인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2회 이상 산재사고가 발생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요양시기부터의 집중적인 관심과 장애부위에 따른 차별화된 재활서비스 접근방식을 모색하고, 요양종결 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진로결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산재장애인의 진로결정수준의 예측변인 모형검증을 통해 산재사고에 따른 요양기간이나 장애부위, 장애정도보다는 오히려 개인적, 환경적 영향이 더 크며, 산재와 관련하여서는 특별히 과거의 산재이력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장애에 따른 기능적인 제한보다는 진로결정 자체에 어려움을 가지는 산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지지체계의 인프라를 구축하여 제공해야 할 것이며, 의사결정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만성적인 의존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훈련하고, 끊임없이 동기부여할 필요가 있다.

연구결론에 덧붙여 후속연구를 제안하면, 향후 진로결정수준이 구체적인 직업탐색 활동과 갖는 관계를 포괄한 연구, 개인의 의존성과 사회적 지지를 포함한 직업결정척도의 개발, 산재 요양 중인 자에 대한 진로결정수준 측정연구를 통해 산재장애인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재활상담 접근과 정책 대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